

[새신자예배 초대글]

나의 사랑, 나의 어여쁜 자야 !

나의 사랑, 나의 어여쁜 자야 !
나의 마음을 가지렴.
내가 바라는 것은 너의 행복, 너의 기쁨.
너를 절망하게 하고
네게 아픔을 주는 것일랑 내게 주고
내 안의 평화, 내 안의 기쁨.
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지는
말씀의 샘.
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해 내 안에 준비된
사랑의 고백.
나를 원하기 바래. . .
이 사랑의 노래에 귀가 열리시나요?

* 출처 : 은누리신문